

소련출신 영화감독의 삶과 예술론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봉인된 시간」

영화 전문서적 출간이 아직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 출판계에서 얼마전 소련의 영화감독 에이젠쉴레인에 관한 이론서들이 여러권 쏟아져 나왔던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기억된다. 영화의 원작소설 등의 좋은 반응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제법 여러 출판사들이 내놓은 영화이론서들 가운데, 영화사에 남을 인물이면서도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했던 그래서 일반에게 생소했던 이 영화 천재의 이름이 자주 보였던 것은 상상이야 어찌됐든 참으로 인상깊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에이젠쉴레인처럼 집중적인 조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명성에 뒤지지 않는 또 한 명의 소련 출신 영화작가가 쓴 책이 조용하게 출간되어 있었다. 「봉인된 시간」(분도출판사, 1991)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특유의 명상적 분위기로 인간의 내면탐구에 주안점을 둔 작품을 주로 제작했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글모음이다. 제명인 「봉인된 시간」이란 영화창작재료 중의 하나인 시간이 채워, 가공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것이 영화라는 의미에서 영화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영화를 또는 영화제작론 또는 포괄적인 예술론에 가까운 글, 그리고 타르코프스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 등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뭉뚱그려져서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촬영현장 또는 편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몇가지 에피소드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읽는 즐거움을 만만찮게 불러일으키는데, 특히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접해본 독자라면 그 즐거움은 한참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즐거움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영화적인' 예술이란 어떤 것이며 현대적 문명속에서

예술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준다.

비교적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서술된 책의 특성 탓인지 이 책의 곳곳에서 저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했던 그는, 자신이 소련당국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서방세계로 망명하는 아픔을 겪었던 경험을 온전히 영화를 만드는데 투여하는 철저함을 보인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내 삶의 논리성의 일부를 고치거나 나의 인간적·예술적 친화력의 일부를 고치는 일을 전혀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부한 읽을거리 중에서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속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해야하며, 무엇을 비극으로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애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그의 통찰력에 의해 나타난다. 마치 신앙과도 같은 경건한 자세로 인간의 삶에 내려지고 주어진 것들을 차근차근 밝히며, 그것에 투영된 인간 내면의 진실을 찾아내어 물질문명이 황폐화시킨 인간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참으로 깊이있는 현실인식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특히 그의 이런 인식은 부단한 자아실현과 현실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바 크다.

90년대에 들면서 우리 지성계 일각에서는 80년대의 성과들을 부정하고 명백한 목표의식도 없이 정신주의와 서정성을 중요시하려는 경향이 고개를 들고있다. 타르코프스키의 「봉인된 시간」은 이런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얻는 데에 대단히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허재호

서울 강서구 화곡6동 996-18

「새들은 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책더미 속에서 좋은 책 하나를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의 즐거움은 남다른 데가 있다. '우리나라 동화 모음'이라는 제목 아래 만들어진 「새들은 날 수 있었습니다」(어린이교육연구회 엮음, 서숙진 그림, 현암사)가 바로 그런 책 중의 하나로, 읽는 이들을 동심의 순수한 세계로 자연스레 끌어당긴다.

「새들은 날 수 있었습니다」는 참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서울교육대학생과 일선교사들의 모임인 '어린이 교육연구회'에 의해 엮어진만큼 시중에서 흔히 눈에 띄는 동화책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 우선은 '주인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화들'이라는 작은 표제가 쉽사리 느껴질 정도로 주인공의 고취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 점 때문에 잘못 받아들일 경우 무언가를 계속 암시하는, 그래서 교과서적인 경직성을 느낄 수도 위험도 있지만 여하튼 의도적인 시도든 아니든 간에 쉽게 눈에 띄지 않던, 그래서 더욱 특별한 동화들의 모음책이다. 권쟁생 외 열네명의 작가들의 작품 스물두편이 실려 있으며, 이 책의 제목은 이 중 한 작품의 제목이다.

동화책의 분류에 마땅히 들어갈 책이지만 누구나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그 대상인 어린이보다 오히려 어른들에게 더 인상적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물론 어린

아이들도 그들 또래의 정서에 맞추어서 읽어낼 만 하지만 어른의 시각으로 읽어내는 재미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인지 흔해빠진 소재로 두툼하게만 써 내려간 웬만한 소설책 하나 읽는 재미에 비할 바가 못된다.

하여튼, 옛것은 수도룩한데 변변한 우리네 것은 흔치 않던 차에 그것도 흔해빠진 외국 것을 우리 것인 양 여겨오던 동화책 분야에서 이만한 책이 엮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즐겁다. 아울러 이런 시도가 단편들의 모음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작가들의 차별성까지도 가려낼 수 있을 만큼의 시도, 즉 장편들의 모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단순한 읽는 이의 욕심일 뿐일까?

최영미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39-489

「모든 섬은 따뜻하다」

어떤 책을 읽든지 우리는 작자의 인간미와 감성에 빠져들곤 한다. 특히 자신의 생활적인 면모를 솔직히 드러내는 책을 만나면 우리는 엿보는 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 즐거움이란 또다른 자신의 발견이다. 그것이 에세이라면 더욱 진솔하고 푸근하게 자신을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내면 속에 자신을 투사할 수 있으리라.

시인의 에세이에는 감성이 넘치고 언어로 풀어놓은 파스한 인간의 숨소리가 안개처럼 젖어있다. 「모든 섬은 따뜻하다」에는 지방도시의 안개에 싸여 원고지에 사각거리는 시인의 조용한 고뇌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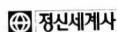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토정 이지함, 매월당 김시습, 다산 정약용 — 그들은 어떤 정신수련을 하였는가? 《단》의 실존 주인공 봉우 권태훈 옹의 구술과 희귀한 문헌자료를 통해 밝혀낸 우리 민족 비전의 정신수련법

《용호비결龍虎秘訣》《선기수략拳機數略》, 《도장道藏》 등 희귀 문헌들의 원문 주해를 통해 원상법(原象法), 시해법(尸解法), 사시산(四時算) 등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겨레의 정신수련법을 최초로 정리 해설한 책. 주문과 부적, 축지법, 둔갑법 등 좌도방(左道方)의 세계도 새롭게 조망된다.

봉우 권태훈 옹 감수/ 정재승 편저/ 6,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사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스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과 가르침

超人生活

불멸의 영혼과 육체를 지닌 채 물질세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는 히말라야의 초인들 — 그들이 펼치는 기적과 초월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생생히 재현한 놀라운 기록!

인도, 티벳 등 히말라야 일대에 실존하는 초능력자 80여 명의 생활, 그들이 행하는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기적을 3년여에 걸친 현지 탐사를 통해 직접 목격한 한 미국인의 방대한 리포트. 수천년 전부터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온 초인들의 단체 성형제단(the Holy Brothers)의 비밀.

베어드 T. 스폴딩/ 정창영 옮김/ 7,000원

모든 인식의 끝에서 만나는 절대고독의 그림자와 짧은 순간에서 포착된 영원함, 추억으로 풀어놓아 펼쳐이는 사물의 이미지들이 있다. 그것은 몽상으로 출발하는 삶의 순간순간에 대한 생의 불안 같은 것이다. 구겨진 편지를 날려보내는 바람이 전해주는 슬픔 같은 것.

제 스스로를 죽은 여름을 안고 있는 남자이며 가을비 속에 들어있는 상처와 외로움을 알고 있는 남자로 명명한 시인의 城은 호반도시의 어디쯤에 있다.

그는 그곳의 城主다.

안개에 싸인 도시의 외롭고 적막한 성. 성주는 이렇게 그곳을 고백한다.

“안개속을 걸어가면 온몸이 부우연 안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에 젖어 부서지곤 한다. 물에 젖은 종이처럼 나는 온몸에 힘이 없었다. 오늘도 그렇다. 온몸이 작은 물방울에 젖어 상처를 입는 것만 같다. 안개가 하루종일 내리는 날 나는 ‘물방울에 상처를 입는다’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 그런날이면 이유없이 따위를 해매었다.”

이 에세이집의 양식은 일종의 변형이다. 시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현실적인 내용들을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허구적인 것으로 만들기도” 한 에세이면서 자전적 소설일 수 있고 그냥 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기-춘천생활 10년-를 토대로 한 변형이라면 이것들은 얼마나 솔직하고 담박한 시적풍경인가.

시인은 이 책의 제목에 대해 말한다. “이책의 주제는 외로움이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 따뜻함을 낳는다”

우리가 순수함의 열정으로 외로움을 체험할 수 있다면, 고독을 수용하며 시인의 몽상과 추

억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옛보는 자의 즐거움에서 시인의 따뜻한 손에 의해 저 축축한 호반도시의 안개속으로 소문처럼 사라져버려도 좋을 일이다.

박명기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789-71

「생쥐에게 꽃다발을」

어떤 소설이 좋은 소설인가. 한편의 작품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좋거나 나쁨을 따지게 된다. 만약 어떤 소설이 좋은 작품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이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감동에 있을 것이다. 소설이 역사나 철학과 다른 점은 바로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진한 울림을 준다는 데 있다.

다니엘 키스의 「생쥐에게 꽃다발」(일세)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책의 표지에 붙어있는 SF(과학소설)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공상과학이나 우주전쟁 따위를 머리에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소설은 지능이 덜 발달된 쥐와 찰리라는 인간에게, 머리가 좋아지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작품구성상의 장치를 제외하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학소설들과 구분된다.

이 작품은 찰리라는 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이 인간 본연의 길을 벗어났을 때 어떠한 비극을 맞아가 하는 점을 극적인 효과로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써서 의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작

품은 바로 이 ‘경과보고’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이 더욱 주인공과 일치된 심리상태에서 기쁨과 절망을 함께 맛보도록 한다. 수술 후 그는 많은 희망을 갖고 학습에 열중하여,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변모하여 자신에 대한 수술 실험의 결과를 완성시킨다. 그러나 그 연구의 결말은 그를 감동과 고통으로 몰아간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후에 수술효과가 떨어져 다시금 전처럼 우둔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과학은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쥐에게 꽃다발」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도 바로 이러한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M.크라이튼이 쓴 「쥬라기 공원」에서도 이미 자연의 섭리에 대한 위반이 인간에게 어떠한 재앙을 가져오는지 본 적이 있는데, 같은 과학소설로 맥이 통한다 하겠다.

안치숙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84번지 주공10단지 1002-101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양귀자의 새 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부드러움에의 매혹이 어떻게 한 여자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만들었으며 또 그 매혹이 어떻게 새로운 여성: 남성 관계의 가능성을 낳는가를 보여준 ‘황홀한’ 소설이다.

매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 길을 포기하게끔 하는 마약이다. 길이 정해져 있는 자, 그것도

신이 정해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매혹에의 도취는 신에 대한 배반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무언가에 매혹되는 것, 그것은 또 얼마나 황홀한가?

권력을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넘어서려는 강민주의 목표는 구체적 대상인 백승하라는 남자에 대한 매혹으로 배반당한다. 강민주는 자기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 남자의 부드러움에 매혹되어 자신의 목표를 상실하는 것, 바로 자기의 죽음을, 황홀함을 소망하게 된 것이다. 백승하의 납치는 강민주에게 남성과의 구체적 대면이라는 실험장을 열어주었는데 여기서 그녀는 남성도 남성적 위계질서의 피해자라는 것과 자신도 남성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강민주는 왜 굳이 죽어야만 했는가? 육체가 가진 힌트를 얻는 순간 그녀는 분명 살고 싶었을 텐데 말이다. 그것은 강민주가 27년간이라는 그녀의 전 생애를 통해 스스로를 이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상은 스스로가 이상임을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이상으로 모시려 하는 추종자의 반격을 받게 된다. 인간이 된 신을 인간이 죽여 부활시키듯이.

소설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한 시대 혹은 한 사회에 뿌리깊은 문제를 가상적 상황으로 보여주고 감동을 통해 독자의 반성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양귀자의 이번 소설은 한국의 ‘(여)성문제’의 다양한 차원을 잘보여주고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운용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여진다.

장주경

강남구 역삼동 610-3

아이들이 지금 병원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A그룹 김 과장.
큰 길로 약 1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곳에서 이상한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즐거운 일이 있는지 싱글벙글 하며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오늘 아침, 또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애야, 어디를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니?”
“어린이 병원이요,” “어린이 병원이라고?”
“아직 모르세요? ○△□병원장이신 왈 박사님이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 의학 상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뭐, 의학 상식을 가르쳐 준다고……”
출근을 마다 한 김 과장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철이도 빨리 어린이 병원에 가 보라고 해야지.”
•이혜원 지음/김충원 그림/신국판, 224면/값 3,500원

어린이 병원

지금 빨리 아이들을 왈 박사님께 보내세요.

 **진선출판사** 720-5990 · 1